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성모 성월)
제31권 26호(가해) 2011.5.22

[묵상]



당신은 길이십니다.
당신이 재신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
아버지를 비추는 진리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당신 안에 머무르시니
당신을 통해 저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신이 동행하지 않는 길을 힘들다고,
당신을 통해 비추어지지 않은 삶이 어둡다고,
당신을 향하지 않는 미래가 두렵다고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길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을
이제는 저희가 믿게 하소서. - 櫃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 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 요 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례(작수달 4제토요일) 성령기도회 배운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이덕철 루까, 권순봉 요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생)한혜숙 루시아 가정, 최태훈 아오스딩
주 일 낮 미사	(연)이덕철 루까, 김석돈 요셉, 이숙자 루피나, 고준희 제임스, 박송희, 김시형 시릴로, 엄익찬 안토니오, 김완태 다미아노, 신태동 요아킴, 전규인 스테파노, 박노현 요한, 장두성 요세피나, 윤홍중
	(생)홍광선 요셉, 석순영 아네스, 신동욱 요셉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차인수 안드레아, 이크리스 아가토, 정로사, 오진 베드로, 유영균 우르바노, 백삼위공동체, 이장환 마르티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6,1-7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
소 - 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2,4-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 음 요한(John) 14,1-12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주 예수 어머니	164	169
봉헌	164	259	187
성체	352	308	282
파견	162	333	325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

89). 생명의 복음에 관대하게 참여하며, 개인과 사회의 선익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 봉사하는 기관과 센터들, 그리고 때때로 상황이 요구하는 다른 모든 자발적인 지원과 연대활동들을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 분야의 모든 종사자들, 즉 의사, 약사, 간호사, 원목, 남녀 수도자, 병원 운영자와 자원 봉사자들은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직업은 그들에게 인간 생명의 수호자와 봉사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과학과 의학이 그 본질적인 윤리적 차원을 놓쳐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보건 분야의 전문인들은 때로 생명의 통제자가 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음의 집행자가 되고 싶은 유혹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

오늘날 이러한 유혹 앞에서 그들의 책임은 엄청나게 증대했다. 그 책임의 가장 깊은 영감과 가장 강력한 지원은 보건 의료직이 지닌 내재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윤리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고대의 것이면서 여전히 현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 선서는 모든 의사들에게 인간 생명과 그 신성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무고한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은 또한 고의적인 낙태와 안락사에 관해서 양심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한다.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결코 의료적인 처치로 볼 수 없으며, 그 의도가 오로지 환자의 요구에 따른 것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는,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생명을 긍정해야만 할 보건 의료직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달리는 것이다. 생물 의학 연구 역시 인류에게 큰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인간 존재의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무시하여 더 이상 인간에게 봉사하기를 중단하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해를 끼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실험이나 연구 또는 응용을 언제나 거부해야만 한다.

90). 자원 봉사자들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이 전문적인 능력과 관대함과 이타적인 사랑과 결합될 때 생명에 대한 봉사를 위한 가치있는 공헌을 하게 된다. 생명의 복음은 그들이 지닌 타인들에 대한 선한 의지를 고취시켜서 그리스도의 자비가 지닌 높이까지 고양시켜 주며, 고된 일과 피곤과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매일매일을 쇄신하도록 고양시켜 주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나서도록,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되는 것은 많지만 보호와 원조는 미미한 새로운 길을 시작해 나가도록 고양시켜 준다. (◆계속)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초등학교 때 집 근처 인적이 뜸한 곳에 작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방물장수 할아버지와 장애를 가진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표정한 얼굴에 말수도 적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했고 함께 산다는 딸을 아무도 본적이 없어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움막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않았지요.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막 움막에서 나오시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여긴 웬일이야?”

나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지만 빨랫거리를 손에 든 어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그 움막에 들리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의 딸을 목욕시켜주고 빨래도 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 후 움막집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임종대세를 주신 후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혀 장례를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성당 신자들이 와서 연도도 바쳤습니다. 며칠 뒤 장례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딸이 몸쓸 병에 걸려 수십 년을 방안에서만 지냈는데 아주머니 덕택에 마지막 가는 길에 호강했습니다.”

어머니는 별말 없이 그냥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도 세례를 받고 주변 사람들도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친구들도 더 이상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당신께서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쁨과 자유, 평화와 행복을 한껏 누리면서 사는 삶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성실히 걸어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올바르게 안전한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을 안다면 이미 성공적인 삶을 시작한 셈이지요.

“나는 길이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라고 하시며 그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길은 한마디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열심히 가면 당연히 진리와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을 알게 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가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올바른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진리와 생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지나가는 걸인이라도 끼니를 챙겨주셨던 어머니에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묵주를 손에 쥐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 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 고등부 견진성사 축하합니다!

지난 20일(금) 오후 7시 성 마가렛 매리 성당에서 고등부 견진성사가 주교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백삼위 주일학교에서 모

두 15명의 학생들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 젊은이들의 앞날에 굳은 신앙생활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 견진성사 받은 학생들 : 배휘인 로셀리나, 소운선 요세피나, 박매겐 마가렛, 정엘리스 클라라, 정승혜 크리스티나, 김보민 이레네, 최보슬 예스텔, 이용배 가브리엘, 이용훈 안드레아, 박경민 미셀, 박소민 안젤라, 서현조 수산나, 유청인 미카엘, 현지선 마르타, 정다니엘 요한

- 이상 15명 -

◆ 본당 설립 30주년기념 체육대회 성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일 백삼위 한마당 가족체육대회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과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푸짐한 상품을 기증해주신 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치냉장고(이재정 사도요한 사목회장), I-POD(이장환 마르티노 본당신부님), 고급전기밥솥(고규채 케칠리아), 32인치 LCD-TV(박인식 토마스), 프랑스식당 식사권1매(이남현 막시모), 호카호카 식사권1매(조영우 스테파노), 오일체인지 교환권10매(권오상 바오로), 쌀20포(정동호 하삼바오로), 양산박 식사권 2매(서용숙 예스텔), DVD플레이어(금영도 베드로)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모집

- 일시 : 5월28일 토요일전미사, 29일 주일미사
- 미사집전 : 최용훈 요셉 신부(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 백삼위 본당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323)388-7737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성경 퀴즈대회

- 일시 : 6월12일(주일) 오후 2시
- 범위 : 루카복음, 전례상식, 성가 알아맞추기
- 게임방식 : Jeopardy 방식의 30문제
- 팀구성 : 6구역(토런스 동,서,남,북, 하버/카슨, PV)
- 선수구성 : 구역대표선수 최대 7명 선발 가능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배론청년회장 ☎(310)650-6057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야외 십자가의 길' 조성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신자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외 십자가의 길'을 성모상 주변에 조성하여 본당의 날인 9월18일 경 봉헌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단체와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현재 4개 단체가 봉헌했습니다.

- 단체봉헌 마감 : 6월30일
- 개인봉헌 : 단체봉헌 마감 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제24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6월2일(목)~5일(주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 참가비 : \$150(마감 5월15일)
- 문의 : 성령기도회 회장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예비자 교리반 LA 주교좌성당 전학

- 일시 : 6월4일(토) 오전 10시~오후3시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대상 : 예비자와 가족, 봉사자
- 내용 : LA주교좌성당의 의미와 역사

◆ 백삼위골프토너먼트

- 일시 : 6월11일(토), 티오프 낮 12시(11시20분까지 집합)
- 장소 :레이크우드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22일(주일) : 토런스 서 2반(소고기국밥 \$3)
- 5월29일(주일) : 친교자리 없습니다.(메모리얼데이연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김관기 나경흠 박선희 이경용 이현주 황지영	김병태 노천수 박영룡 이근태 임 순 송마이클	김상규 노혜숙 석순영 이남현 정혜영	김성일 문충한 신순철 이영석 차병용	김정엽 박기돈 오수인 이영희 최희숙	김형순 박선희 육근주 이태옥 한혁수
합계 : \$2,665						
미사헌금 : \$2,546						
성전헌금	김관기 노혜숙 석순영 이영희 송마이클	김성일 문충한 신순철 임 순	김정엽 박기돈 오수인 정혜영	김형순 박선희 이경용 차병용	나경흠 박선희 이근태 한혁수	노천수 박영룡 이남현 황지영
합계 : \$1,625						
합계 : \$1,625						
감사헌금 : 박이레네						

주일학교 소식

- ◆ 5월29일(주일) 선데이스쿨/한국학교 수업없습니다.
 - 5월30일 메모리얼데이 연휴관계로 29일 주일 학교수업이 없습니다.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는 있습니다.
- ◆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행사일정 : 6월12일(주일학교 종업식날)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 첫영성체 예식
 - 준비모임 : 6월4일(토) 오후3시, 고해성사, 리허설
 - 첫영성체 예식 : 6월5일(주일) 낮11시 미사중
 - 대상 : 주일학교 2/3학년 이상 학생
- ◆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슬리퍼,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 여벌옷, 채킷, 선블럭,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 참가비 : \$40(5월30일 이후 신청 \$60) *신청 : 주일학교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참가비 : \$185(5월30일 이후신청 \$205)
 - 접수 : 주일학교

남가주 소식

- ◆ 남가주 M.E. 골프대회
 - 일시 : 6월21일(화), 낮 12시 등록, 티오프 오후 1시
 - 장소 : 리버사이드 Oak Quarry 골프클럽
 - 진행방식 : 샷건플레이
 - 회비 : \$100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 ◆ 제4회 2011 FIAT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3일(목)~26일(주일)
 - 장소 :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참가비 : 본당 후원
 - 대상 : 주일학교 교장 및 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구성 : 기본/실질적 사목능력교육, 영성교육
 - 문의 : FIAT웹사이트 www.fiat.org
- ◆ 20-30대 'Come and See' 색다른 신앙여정에 초대
 - 일시 : 6월24일(금) 오후 7시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문의 : 리디아 ☎(714)514-5161, 도미니크 ☎(714)457-9571
 - 주최 : 청년 프란치스칸회 www.mygodmyall.net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찌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등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별혜경 율리아나 920-5153	김정희 율리아 830-0106 5/6(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2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415-0034 5/11(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경크리스티나 750-4051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새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테나타 808-5005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고천용 377-6328 5/13(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정충도 안토니오 325-9915 5/13(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5/15(주일) 본당 체육대회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인숙 안젤라 323-717-7866 5/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메모리얼데이 연휴	
-----------	--

제26차 청소년주일을 담화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제 우리는 2011년 8월 마드리드에서 열릴 다음 세계 청년 대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골로 2,7 참조)라는 주제로 마드리드에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각 시대마다 많은 젊은이들은 진정한 우정을 쌓고 참 사랑을 알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자아실현을 이루며 참다운 안정을 얻기를 열망합니다. 젊은 시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자 노력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생명을 지향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열망합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 특히 서방의 현대 문화는 하느님을 배제하고 신앙을 순전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신앙의 보화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이러한 연유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사회와 교회의 미래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써 보냈듯이, 뿌리를 내려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일러 주십니다. (요한 14,6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참다운 신원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분과 이루는 친교를 통하여 완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땅을 깊이 파는” 사람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참다운 벗이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삶의 여정을 그분과 함께 가십시오. 오로지 그분만이 세상을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체 안에

서 예수님을 ‘뵙고’ ‘만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의 살아 있는 믿음과 창조적 사랑과 힘찬 희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존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젊게 하며 교회에 새로운 힘을 줍니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청년 대회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은총입니다. 에스파냐 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쁜 신앙 체험을 나눌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가오는 세계 청년 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신앙과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저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을 기억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께 진심어린 저의 축복을 보내 드립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전세계 가톨릭 신자수 11억8천66만5천명

- 교황청 '교회 통계 연감' 발표 -

한국은 5백3만5천명...세계 45위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발행한 2011년 판 「교회 통계 연감」에 따르면, 2009년 12월31일 기준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11억 8,066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4%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년도 통계 2008년 11억 6,571만 4천 명에서 1,495만 1천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한국은 503만 5천 명으로 세계 227개 국가에서 45번째로 신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주교수는 전년도보다 63명이 늘어난 5,065명, 사제 수는 1,427명이 늘어난 41만 593명으로 집계되었다. 2009년 세례자 수는 1,719만 1,257명이며 그중 7세 미만의 유아세례자 수는 1,441만 8,632명으로 나타났다.